

감기 씻은 한국 ‘자존심 회복 선언’

손흥민·구자철·김진현 등 컨디션 회복

내일 호주와 3차전…조 1위 위해 꼭 이겨야



한국 축구 대표팀이 기세가 오른 개최국 호주를 상대로 그동안의 부진을 딛고 자존심을 회복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올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7일 브리즈번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15 호주 아시안컵 A조 3차전에서 호주와 맞붙는다. 이미 8강에 안착한 한국과 호주는 나란히 2승을 거둬 마지막 3차전 승부로 조 1위를 결정한다.

호주는 골득실에서 한국보다 +5골 앞서 비겨도 조 수위를 차지하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한국의 8강전 상대가 모인 B조에서는 중국이 2승, 우즈베키스탄이 1승1패, 사우디아라비아가 1승1패를 거뒀다. 대진은 불투명하지만 조 1위를 차지하면 브리즈번이 아닌 멜버른에서 8강전을 치르는 이점이 있다. 브리즈번 스타디움은 잔디는 군데군데 패인 곳인 많아 국제대회 경기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많다.

슈틸리케 감독은 한국이 지향하는 패스 축구를 위해서는 조 1위에 올라 브리즈번을 떠나는 게 상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라운드 선택이나 조 1위보다 시급한 것은 쿠웨이트전 출전으로 무너진 선수단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호주는 오만, 쿠웨이트와는 차원이 다르고 상대적으로 세계 무대에 한 발짝 근접한 팀으로 인식된다. 슈틸리케 감독이 한국 대표팀의 노골적인 전력과 색채를 보여줄 시금석으로 호주가 주목되는 셈이다.

한국은 호주를 꺾고 난국을 풀어나가는 해법을 찾으면서 우승 동력도 다시 점점하겠다는 각오다. 부상으로 이청용(불탄)이 떠났지만 감기 몸살로 앓아누운 공격수 손흥민(레버쿠젠), 구자철(마인츠), 골키퍼 김진현(세레소 오사카)은 모두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다리를 다친 오른쪽 풀백 김창수(가시와 레이솔)도 치료를 마치고 컨디션 회복에 열을 올리고 있다.

슈틸리케호의 기본적인 전술 대형은 4-2-3-1이다. 최전방 공격수 조영철(카타르SC)은 건재하고, 처진 스트라이커로는 구자철, 좌우 원어로는 손흥민, 남태희(레쿠아)가 출격을 준비한다. 중원의 듀오로는 기성용(스완지시티), 박주호(마인츠)가 버틸 것으로 보인다. 좌우 풀백은 김진수(호펜하임), 김창수, 센터백은 김주영(FC서울), 장현수(광저우 푸리), 골키퍼는 김진현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은 호주와 지금까지 24차례 맞붙어 6승10무8패로 열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한국은 69위로 100위를 달리는 호주보다 높다. /연합뉴스

광주FC, 더 매서워졌다

186cm 브라질 최전방 공격수 질베르토 영입



광주 FC가 브라질 공격수 콤비로 클래식 무대를 겨냥한다.

K리그 클래식 광주 FC가 14일 브라질 공격수 질베르토 (Gilberto·27·사진)를 영입했다.

브라질 과라니FC(세리에-A) 유스 출신인 질베르토는 186cm의 큰 키와 탁월한 체력조건을 바탕으로 한 파워가 돋보이는 최전방 공격수다. 또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브라질 특유의 움직임과 드리블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광주의 공격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1부리그 하이퐁 FC, 알바니아 1부리그 KF 티라나, KS 플라무타리 블로레 등에서 다양한 축구를 경험하기도 했다.

광주는 지난 시즌 승격에 힘을 보탠 파비오와의 재계약에 이어 질베르토를 영입하면서 새로운 브라질 콤비를 구성하게 됐다.

질베르토는 “광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1부리그 승격을 이뤄낸 강인한 팀인 만큼 하루빨리 팀에 녹아들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며 “파비오와 함께 팀이 필요로 하는 득점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질베르토는 15일 광주의 합숙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광양으로 이동해 선수단에 합류했다. /김여울기자 wool@



심기일전

2015 AFC 호주 아시안컵 조별리그 A조 3차전 호주와 경기를 앞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차두리와 손흥민, 구자철(왼쪽부터)이 15일 호주 브리즈번의 퀸즐랜드 스포츠 & 레슬 센터(QSAC)에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운영인력 빨리 뽑아 교육·리허설 해야”

광주U대회 종목담당관 워크숍

“예산이 없다고 무조건 깎으면 경기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현실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되 배치는 협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심·운영인력 등을 빨리 확보해 교육하고 각자 역할에 맞는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 특히 시상식 등 동선을 점검하는 등 리허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전연습을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난다.”

15일 오후 4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U대회) 조직위원회 8층 회의실. 20여명의 광주U대회 종목 담당관이 모여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U대회 경기운영과 관련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쓴소리도 쏟아냈다.

종목담당관들은 경기 운영인력을 최소 정예화하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경기장마다 50~80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가능한대로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다. 또 경기용기구의 효율적인 확보 등 예산절감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들은 “인전 아시안게임의 실패는 운영 미숙에 있었다”며 “운영인력을 빨리 확보해 각자 맡은 임무를 실천 연습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기 운영 외에도 선수와 임원, 관람객, 취재진 지원 등에 대해



2015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의 경기 운영을 담당하는 ‘종목담당관 워크숍’이 15일 조직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윤석 사무총장을 비롯해 종목담당관 25명이 참석했다. <광주U대회 조직위 제공>

서도 다른 대회의 사례를 분석해 철저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광주U대회 조직위는 이날 워크숍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조직위는 오는 3월 담당관회의를 다시 열어 운영인력 교육과 테스트 이벤트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